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44호(98/8/22)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GO JINBONET!

소통과
연대의
미래로....

Enter

..... 진보네트워킹센터

NEW 진보네트워킹센터가 출범합니다

NEW '98 중파업 홈페이지

NEW 20 / 80 투쟁의 봄 홈페이지

NEW 시위대학교
평교수협의회

비민주적, 기만적, 폭압적인 제헌을 상대로 교수
학생들이 단결하여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시위대 평교수 협의회의 홈페이지이다.

시준석은 무죄다!

시준석 선생님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정보네트워킹포럼

What's new?

KPD속보

e-mail net@mail.sing-kr.org

KPD이슈

단체 메일링 리스트

토론 메일링 리스트

진보적인 BBS

과학기술 / 정보

Home

문 화

노 동

한 경

여 성

청년 / 학생

정치 / 사회

인 권

종 교

보건의료

부문과 지역의 벽을 넘어, 세제와의 소통
진보네트워킹은 사회운동네트워킹입니다.

인권선언 주간에 열릴 3회 인권영화제

-작품 선정작업 시작, 재정과 장소는 난제-

예년 같으면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일정이 들려올 텐데 아무런 얘기도 없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3회 인권영화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영화제라기 보다는 상영투쟁을 전개했다고 해야 옳을 제2회 인권영화제 이후 오히려 인권영화제는 국내외에 더욱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대표와 『레드 헌트』도 해외에서도 인권단체와 영화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요.

이런 상황은 3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권영화제에 상영하겠다고 세계 곳곳에서 작품을 추천하거나, 작품을 보내오는 곳이 많으니까요. 집행위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후보작 120편을 보고,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남미로부터 시작해서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물망에 오른 작품 중 우선 다국적기업 맥도널드사와의 법정투쟁을 기록한 『맥리벨』, 아이티의 억압적인 상황을 그린 『레지스탕스』 등 8편을 확정했고, 총 30편 정도를 엄선할 예정입니다. 집행위원회는 보다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9회 뉴욕인권영화제에 김정아씨를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말에서 12월초 열릴 예정

올해 서울의 인권영화제는 11월말에서 12월초에 진행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세계인권선언 주간에 맞추어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3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으로 서준식 대표, 집행위원으로 김동원(푸른영상), 김명준(노뉴단), 김태영(인디컴), 김

혜준(영화연구소)씨 등 영화인, 이충직(중앙대) 교수, 김도형, 조광희 변호사, 조종국 씨네21 기자, 이용신 서울대 미대생으로 진용을 갖추었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주최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주관은 인권운동사랑방이 맡고, 조직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인권단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갖추려는 것입니다.

쇼아 판매 부진, 장소 동국대 교섭하러 하지만, 문제는 재정과 장소입니다. 3회 인권영화제의 돈줄을 기대했던 <쇼아> 판매가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21절을 판매한 정도이니 적극적으로 판매전략을 구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해 지방영화제를 개최했던 곳에 3절씩 팔아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재정으로 마련하기는 어렵지요. <쇼아>를 구입하면 3회 인권영화제 특별후원회원이 되십니다(판매가 10만원)번 역자원봉사자들은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아예 테스트를 하여 실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 쓸 정도입니다.

장소문제. 올해도 역시 사전심의를 남아있는 관련법들 때문에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개최하려던 장소인 동국대 문화관을 교섭하려고 합니다. 아직 제대로 교섭조차 안되고 있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석달 앞으로 다가온 인권영화제, 지난해보다는 당국의 탄압이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3회를 맞는 인권영화제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 / 업 / 보 / 고

(98년 7월 셋째주부터 8월 둘째주까지)

양지마을, 사법·정치적 대응 진행 9월 10일경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16일, 양지마을과 송현원에 대한 긴급진상조사 활동을 벌였던 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 민변, 이성재 의원실은 8월 12일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후 준비에 대한 불철저성과 사회복지운동 팀의 결합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활동을 통해서 양지마을 등의 문제점을 고발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이 사건의 처리방향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후 사업 방향으로 2차 형사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기간과 정기국회 기간 동안 이성재 의원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정치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집회와 농성 등을 배치하며, 9월 10일경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부터 1주일간 벌인 양지마을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감사는 실사없는 형식적인 감사, 봐주기식 감사에 그쳤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였고, 이어 8월 7일에는 노재중 이사장 등 시설 관계자 9명을 특수감금,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대검에 퇴소자

34인의 이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3개 인권단체 대표의 이름으로 고발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어 대검은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정하고, 오는 9월 5일까지 1차 조사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8월 21일에는 노재중을 긴급체포하고, 양지마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mbc PD 수첩 팀이 추가 취재에 나서 오는 8월 25일 밤 11시에 양지마을에 대한 두번째 편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인권환경포럼(회장 황우려 의원)이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내의 인권문제' 토론회가 8월 28일 오후 2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사랑방은 이 사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옥 설문조사 1차 통계결과 나와

올해 3월부터 시작한 감옥 인권 실태 설문조사에 대한 1차 통계결과가 나왔습니다. 8월 초까지 수거된 152건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이번 결과는 이후 감옥 인권 실태 연구조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1차 통계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이 55.3%, 20대가 61.8%,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관련이 73.6%로公安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일반수들의 설문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지난 3월 13일 특별사면 때와 마찬가지로 8·15 특별사면 때도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함께 전국 주요 교도소 20여 곳을 방문해 1천 여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습니다.

한편 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 감옥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연구팀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법조인, 학자, 활동가 등)는 사랑방(741-5363 엄주현)에 연락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 팀과 인권네트워크 준비

통신이 운동의 중요한 도구로 등장하면서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통제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롭기 위해 준비되었던 진보네트워크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추진 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는 노동·학생·인권 등 부분네트워크를 띄울 예정이고, 사랑방은 인권네트워크의 내용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일단 양심수 홈페이지를 만들어 김대중 정권하에서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양심수들과 8·15 특별 사면때 나오지 못한 양심수들의 신상을 정리한 자료와 양심 시계를 만들어 몇 시간동안 수감되어 있는지 알릴 예정입니다. 양심수 홈페이지 주소는 "www.jinbo.net"입니다.

보안관찰법 공대위 준비중

지난 6월, 전문가와 보안관찰 대상자들의 워크숍 이후 보안관찰법 대책팀은 8월 17일 민변 기획변론팀(총 5명 중 이석태, 임영화 변호사 참석)과 만나 보안관찰법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민변은 사랑방측이 제시한 보안관찰법 기획변론팀을 5명의 변호사들로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6월 18일 보안관찰법 행정소송에 승리한 장민성 씨의 상고심 중 공동변론 지원하여 장씨 사례를 새롭고 중요한 사례로 만들기로 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이후에도 보안관찰법에 관한 법정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8월 15일 출소자 중 보안관찰 대상자 45명에게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과 전화 홍보를 시작하였고, 9월부터는 직접 대상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지방순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기초로 이후 보안관찰법 공대위 구성할 것이고, 이 공대위

를 토대로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가보안법 1차사업 11월 완료 계획

오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50주년을 앞두고 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랑방은 대중용 국가보안법 교재작업과 제7조 자료집을 만드는 일을 11월 중으로 완료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고, 두 팀으로 나뉘어진 사업팀이 매주 점검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팀은 대중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국가보안법 현상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을 설명하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자료팀은 91년 5월 31일 이후 제7조 작용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석,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운영·자문위원 중 이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은 사랑방 김정희씨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변과 민가협과 공동으로 하는 캠페인은 오는 12월 1일을 전후한 시기에 국가보안법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공동 워크숍 진행

인권교육실은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주최의 제33차 국제청년 캠프에서 한국, 일본, 대만, 몽고 등 30여명의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또, 워크숍 이후 명동거리에서 인권 캠페인 'Right to Act, Right to Hope' 전개했습니다. 유네스코 청년원의 요

칭으로 함께 하게 된 이 사업에 대해 매우 좋은 평가를 얻었고, 앞으로도 공동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육실은 여름 기간 중에서 7월 22,23일 이틀간 대학생인권모임 소속 이화여대, 숭실대, 서울교대, 연세대, 성공회대 학생들에 대한 연수를 한 것을 비롯하여 8월3일부터 14일까지는 성균관, 순천향, 숭실대 학생 6명등에 대한 여름방학 사회복지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8월 7일에는 일본 HURIGHTS OSAKA에서 온 Jeff Plantilla와 면담, 한국의 인권 교육 현황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재 작업은 현재 수정작업이 진행중인데, 미술팀이 결합하여 삽화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진행된다면 교재 수정 작업이 8월말까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임, 인사동 전열 정비

자원봉사자 모임인 인사동은 지난 3월 28일 처음 공식적인 모임을 시작한 이래 7월까지의 활동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인사동은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 모임을 진행해오면서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사랑방의 사업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원봉사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활동해 상승작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여러 면에서 지적되었는데,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 지속적으로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발전시킬 만한 사랑방내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사랑방의 여

러 사업의 문제의식과 활동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자봉단 내에서 함께 평가하고 토론해서 일단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는 내용들로 첫째로, 현 자봉단 활동과 모임, 교육에 내실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모임 때 사랑방 상근자가 함께 참여하여 사랑방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권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자봉단들이 서로 준비를 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자봉단에서 독자적인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새로 자봉단으로 오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봉단 활동과 사랑방 사업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책자와 브로셔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나름대로 자봉자 모임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성과들을 남겼는데 하반기의 이들의 실험에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자료실, 자료 정리 계속

6월부터 수습생으로 연수중인 배경내 씨가 인권하루소식 연수를 마치고 한 달 기간 동안 자료실에게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뛰어난 배경내 씨는 그동안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영문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98년 상반기 국내 자료도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98년 상반기 자료정리를 마칠 예정입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10호가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8월말까지는 여러분께 우송될 것입니다.

□ 사랑방은 부산·울산공안조작사건 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은 부산·울산 상황을 신속 접수하고 자료를 교환하면서 서울에서의 서명운동, 탄원서 접수, 항의집회 등을 지원하거나 동참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부터 문제가 된 준법서약제에 대해서 사랑방은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향제도의 변형이라는 입장 하에 꾸준히 기고, 언론활동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8.15 특사에 대한 입장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7쪽 전문 게재).

□ 인권협은 한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집행위원회를 오는 8월 25일 열게 됩니다. 이번 집행위원회에 사랑방은 인권영화제에 대한 인권협 주최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 다원건설(구 적준)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대책위원회에서는 적준의 인권침해에 관한 종합 자료집을 준비중입니다. 자료집에 대한 책임을 사랑방이 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초안을 오는 8월 26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 국민인권기구 설치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협 소속단체들과 여성단체 등은 8월 10일에 이어 24일에도 토론을 계속, 국민인권기구 설치와 관련된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단체의 안을 마련하여 정치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 불심검문 캠페인이 지난 양심수 캠페인 기간 내내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민가협과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때 이영태, 유해정 두 자봉자와 서울대 학생 등 12명이 중부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불법 검문과 관련 피해를 입은 학생들 사례를 모아 9월초 소송을 진행하고, 지금까지의 캠페인을 평가,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샵도

계획중입니다.

□ 지난 18일 영면하신 출소 장기수 금재성 선생 장례식에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 서대표가 가족들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출국했습니다.

□ 임신 초기 입덧이 심해서 7월중에 휴가를 냈던 김수경씨 다시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수경씨는 건강상 반상근으로 근무중이며, 국가보안법 교재팀과 결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 사무국의 식구들이 지난 7월부터 1주일 켜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휴가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 중에도 바쁜 사람들은 휴가를 뒤로 미루거나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사무국에서는 지난 8월 8일 진보적 인권운동론과 준법서약제에 장시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안 문제에 대해 이런 집중 토론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지며 논의를 심화시켜갈 예정입니다.

□ 모처럼 사무국에서는 가평 두밀리 장호순 선생 댁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과중한 업무로 인해 쌓인 피로도 풀고, 성원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MT에는 16명이 참가해, 물놀이와 등산 등을 즐겼습니다. 극진하게 대접해주신 장호순 선생 부부께 감사드립니다.

□ 행형 문제 연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엄주현)

□ 국가보안법 판결문, 공소장, 논문 등의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담당 박래군, 김정희)

<자료-성명서>

‘국민의 정부’의 인권시계는 뒤로 가고 있다

- 법무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 오늘 발표로 현재 양심수 455명 중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시국公安사범 94명만이 풀려났다. 사면에서 제외된 자가 360명이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세계최장기수 우용각씨(41년째 복역 중)를 비롯한 비전향 장기수 17명과 한총련 대학생 등이 이번 특사에서 제외된데 대해 분노하고 개탄한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 말로 인권을 강조한 김대중 정권이 과연 김영삼 정권, 그 이전의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묻고 싶다. 김대중 정권 들어서만 232명의 양심수들을 구속했다. 이번 특사는 232명의 절반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이다. 정부 수립 50주년을 무색케 할 정도로 지난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김대중 정권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1. 결국 우리가 준법서약서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권도 실시하지 않았던 준법서약서제 적용으로 풀려 나온 사람보다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가 더 많아 ‘국민의 정부’에 기만당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준법서약서가 없었다면 더 많은 양심수들이 나올 수 있었다. 정부가 누차 준법서약서가 많은 정치범을 내보내는데 있다고 선전해 놓고선 이를 뒤집어 정치범을 가두는 제도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제 변형된 전향제도에 다른 아닌 준법서약서의 폐해가 드러난 이상 정부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1. 어느 사면.복권과 마찬가지로 헌정 파괴범인 비리 정치인, 선거사범은 물론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까지 한 보파리로 사면.복권시켰다. 권노갑 등 한보사건 연루 정치인들과 정호용, 장세동, 황영시, 허화평 씨 등이 이들이다. 이번에도 양심수들의 사면.복권은 비리 정치인, 선거사

범, 광주 학살범들의 사면.복권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다. 이는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다.

1. 죄상이 무거운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복권되었다고 부하들인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들을 ‘형평의 원칙’을 운운 하면서 사면.복권시켜 놓고선 구미유학생사건의 강용주씨, 사노맹사건의 현정덕씨, 구국전위 사건의 류락진씨, 중부지역당 사건의 최호경, 장창호, 조덕원씨 같은 경우엔 형평의 원칙을 적용치 않는 고무줄 원칙을 들이대며 합리화해 또 한번 개탄해 마지않는다.

1. 결국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장에서 출소公安사범들이 안보저해사범 운운하면서 보안관찰법적용을 강화할 뜻을 비추었다. 결과적으로 사상전향에 다른 아닌 준법서약서를 확대, 강화하여 출소公安사범들에게 보안관찰법적용을 연계해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능케 하여 보안관찰법적용의 남용이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분명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책의 전면적인 후퇴다.

- 기만적인 사면.복권을 규탄한다.

- 사상전향제도의 변형인 준법서약서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전 정권과 김대중 정권하에서 구속된 자들의 공소 취하, 수배자 해제, 완전 복권을 단행하라.

- 반통일악법,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준법서약제도와 보안관찰법을 연계해 출소 정치범들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조치를 중단하고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1998년 8월 14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박병섭)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98년 7월 재정보고

(98년 7월 16일 - 8월 15일)

전기이월: - 3,729,966원

수 입		지 출	
회비	2,187,400	활동비	4,605,000
구독료	2,721,440	발송비	1,002,350
사업수익		사무비품비	347,830
자료판매 및 복사비	657,750	사무실유지비	896,530
교육 및 강연비	560,000	간행물구독료 및 자료구입	40,000
불심검문카드 및 소책자판매	400,000	식대 및 부식비	516,795
후원금	2,530,000	통신·전화비	1,257,004
Human Rights Watch 상금	3,899,079	사무기기	1,895,000
기타	5,250	복사비	359,450
		기획사업비	
		불심검문	351,900
		양지마을	713,135
		연대사업	80,000
		기타	147,200
수입총액:	12,960,919 원	지출총액:	12,212,194 원
최종결산:	- 2,981,241 원		

<7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마침 서준식 대표가 휴먼 라이츠 위치에서 받은 상금 3천달러를 기탁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가장 나이 많은 자원봉사자인 권태평씨(강기훈씨의 모친)께서 낡은 복사기로 고생하는 사무국 사정을 읽으시고, 완전 A급 복사기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 덕분에 복사를 매우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방송국 이광조 PD가 중고 컴퓨터 한 세트를, 인권하루소식독자 신호승 씨가 중고 컴퓨터 모니터를 주셨습니다. 이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여러 차례에 걸친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한 사무실 피해가 막심합니다. 사무실이 낡아서 천정과 벽에서 물이 새들어오는 바람에 컴퓨터의 일부 부품과 팩스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컴퓨터와 팩스(가정용은 제외)를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